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면접구술시험

학생부종합전형[활동우수형] 의예과 인 · 적성면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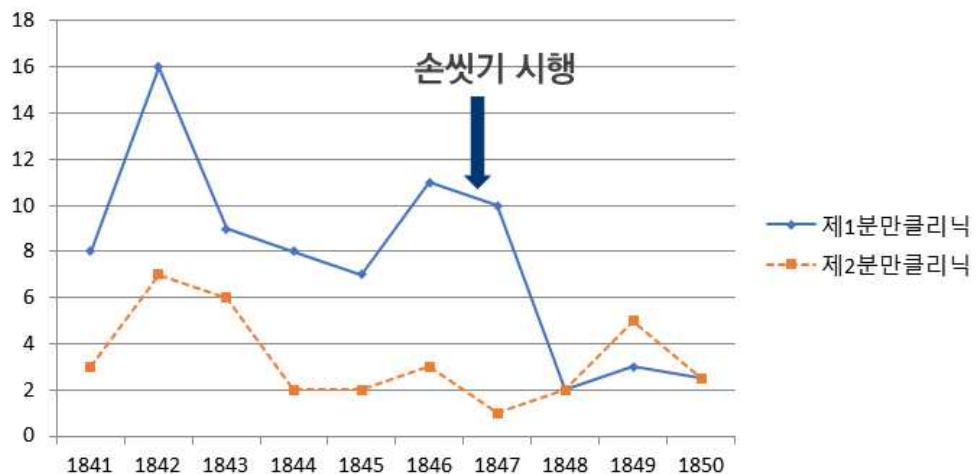
[문제 1]

※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15점)

[가] 이그나즈 제멜바이스(Ignaz Semmelweis)는 1818년 헝가리에서 태어났으며 산과학을 전공하였다. 그는 당시 유럽에서 임상적, 공중보건학적으로 중요한 문제였으나 정확한 원인과 예방방법은 알려져 있지 않던 산욕열에 관심을 가졌다. 산욕열이란 출산 후 열흘 이내 나타나는 발열이 가장 두드러진 질환으로 이에 감염된 산모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제멜바이스가 근무하던 비엔나 종합병원에는 제1분만 클리닉(First clinic)과 제2분만 클리닉(Second clinic) 두 개의 병동이 있었는데, 제1분만 클리닉에는 의사와 의과대학생이 있었고 제2분만 클리닉에는 조산원이 있었다. 제1분만 클리닉의 의사와 의과대학생은 산욕열로 사망한 여성을 부검하는 것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였고, 부검 후 곧바로 제1분만 클리닉에서 분만업무를 시행하였다. 제2분만 클리닉의 조산원은 부검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음 그림은 비엔나 종합병원의 병동별 산욕열 사망률을 도식화한 자료이다. 이를 바탕으로 제멜바이스는 제1분만 클리닉의 의사와 의과대학생이 산욕열을 예방할 수 있는 지침을 개발했다. 부검을 마친 의사와 의과대학생은 반드시 손과 손톱을 씻은 후에 분만실의 산모와 접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성사망률(%)



[그림] 비엔나 종합병원의 산욕열 사망률(1841년-1850년)

[나] 위 그림의 분석을 기반으로 제멜바이스는 산욕열의 원인에 대한 이론을 정립한다. 의학은 개별적인 관찰을 일반화하여 지식으로 만들고 지식을 실천함으로써 건강을 개선시켜야 하는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제멜바이스는 수년간 자신의 연구 결과와 임상적인 의미를 주요 학회에서 발표하거나 의학학술지에 게재하지 않았다. 또한 제멜바이스는 사교성이 부족해서 당시 의료계의 원로들로부터 외면당했다. 이러한 상황들로 인하여 손씻기 지침이 널리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수년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한편, 그 당시 의사들은 자신들이 환자를 사망하게 한 산욕열의 원인 물질을 옮겼다는 책임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의사들은 환자를 보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지적하기도 했으나 제멜바이스는 그러한 지적을 무시하였다.

1-1 [가]의 그래프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산욕열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1-2 산욕열의 원인과 해결방안의 발견에도 불구하고, 제멜바이스의 방법은 신속히 확산되지 않았다. 당신이 제멜바이스라면 어떻게 동료들을 설득하고 지식을 확산시켜 의료를 개선하겠는가? 가능한 방안을 최소 두 가지 이상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

[문제 2]

※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15점)

[가] 외부의 평가와 실제 자신은 종종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아무리 유명한 섬바디라 해도 한 사람의 내면에는 노바디가 함께 들어 있다. 남들에게서 노바디 대접을 받으면서도 정작 본인은 섬바디를 갖는 사람도 있다. 노바디와 섬바디는 우리의 내면 속에서 각기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의 사적인 자아와 공적인 자아는 다른 하나가 없으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내면의 노바디를 몰아내고 언제나 섬바디 행세만 하려고 하면,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불행한 결과가 초래된다.

노바디가 속한 내면의 방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출입구를 우리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회전문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내면의 노바디를 인정하는 순간, 다른 이들을 노바디로 비하하려는 충동이 사라진다. 우리가 내면의 섬바디를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의 능력을 끌어내게 된다.

[나] 함께 일하는 사람 중에 박 씨도 있었다. 어느 날 박 씨가 두툼한 화집을 한 권 옆구리에 끼고 출근을 했다. 나는 속으로 ‘꽤 값하고 있네. 옆구리에 화집 낀다고 기껏 간판장이자 화가 될 줄 아남’하고 비웃었다. 그러나 순전히 폼으로만 화집을 끼고 나온 것은 아닌 모양이었다. 그가 화집을 펴들고 나에게로 왔다. 얼굴에 망설이는 듯 수줍은 미소를 띠고, 마치 선생님에게 칭찬받기를 갈망하는 초등학교 학생처럼 천진무구한 얼굴이었다. 그가 어떤 그림 하나를 가리키며 자기 작품이라고 했다. 「일하는 촌부 (村婦)」라는 제목의 그림이었다. 일제시절의 관전인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한 자기의 그림이라고 했다. 내가 함부로 대한 간판장이 중에 진짜 화가가 섞여 있었다는 건 사건이요 충격이었다. 나는 부끄러움을 느꼈고 내가 그동안 그다지도 열중한 불행감으로부터 문득 깨어나는 기분을 맛보았다. 그리고 나의 수모를 말없이 감내하던 그의 선량함이 비로소 의연함으로 비치기 시작했다.

[다] 삶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은 다음 세 축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첫째는 삶의 신념 혹은 가치관의 의미가 살아 있는 선택과 의미가 죽은 선택, 둘째는 불가피한 선택과 회피할 수 있는 선택, 셋째는 중요한 선택과 하찮은 선택이다.

2-1 제시문 [나]의 화자가 가지고 있던 박 씨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이것을 제시문 [가]의 논의를 바탕으로 설명하라.

2-2 제시문 [나]에 등장하는 생계를 위해 간판을 그리는 박 씨의 선택을 [다]를 바탕으로 설명해 보라.